한국 고유의 특성을 지닌

## 33관음성지 순례 코스

33관음성지 순례는 일정이나 동선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추천 코스는 전국을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눠
4차례에 거쳐 순례하는 표준 모델 코스임을 알립니다.

**I. 서남권 추천 코스**

❶ 보문사 ❷ 조계사 ❸ 용주사
❺ 법주사 ❻ 마곡사 ❹ 수덕사
❼ 금산사 ❽ 내소사 ❾ 선운사 ❿ 백양사

**II. 남부권 추천 코스**

⓫ 대흥사 ⓬ 향일암 ⓭ 화엄사 ⓮ 쌍계사 ⓯ 송광사 ⓰ 보리암

**III. 동남권 추천 코스**

⓱ 범어사 ⓲ 통도사 ⓳ 기림사
⓴ 동화사 ㉑ 은해사 ㉒ 불국사
㉓ 해인사 ㉔ 직지사 ㉕ 고운사

**IV. 동북권 추천 코스**

㉖ 법흥사 ㉗ 월정사 ㉘ 낙산사
㉙ 신륵사 ㉚ 구룡사 ㉛ 신흥사
㉜ 봉은사 ㉝ 도선사

# 33관음성지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템플스테이
TEMPLESTAY

##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관음성지순례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사찰에서 머물며 1,700년 동안 이어온 한국불교문화와 전통을 만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 그리고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는 나라와 민족, 문화적 차이와 벽을 넘어 전 세계인을 하나로 잇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불, 발우공양, 참선, 다도, 108배 수행, 스님과의 대화, 사물(四物)체험 등 지역과 사찰의 특징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여 개의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사찰에서는 연중 365일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관음성지 사찰 중 28개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보문사, 도선사, 향일암, 보리암, 법흥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템플스테이 홍보관 : 02-2031-2000
운영시간 : (월~금) 9시~19시, (토~일) 9시~18시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www.templestay.com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연락처 : 02-2031-2000 / 이메일 : support@templestay.com
**발행일** 2022년 6월
**기 획**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http://kbuddhism.com


※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자료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지도는 관광지도로 제작되어 방향지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관음성지지도리플렛_최종_추가인쇄.indd 1
2022-12-02 오전 9:47:02

# 33관음성지순례
## "관세음보살님 만나러 갑니다"

"깊은 산, 맑은 물, 새소리, 바람 소리를 벗 삼아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놓습니다.
천 년의 긴 세월을 잊은 듯 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한 고찰에서
회오리치는 번뇌도 훌훌 털어봅니다. 잔잔한 부처님의 미소가 위안을 안겨줍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의 품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밝은 지혜를 안겨주는 여행길,
33관음성지순례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 33 관음성지란?

우리나라 사찰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불법을 이 땅에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찰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엄사상을 표방하는 화엄사찰, 아미타 부처와 미륵부처의 세계를 그리는 정토사찰, 관음보살의 대자비를 간구하는 관음도량 등 입니다. 그중 관음성지는 관음신앙에 기초한 전통 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자격의 사찰로 한국 불교를 대표함은 물론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관음신앙이 뭔가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 형상으로 나타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하면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을 신봉하는 불교 신앙으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하여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음보살은 부처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의 자리를 버리고 보살이 되어 중생을 구제하는데, 33가지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관음신앙의 핵심 사상은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 관음성지 순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순례는 역사속의 성인을 만난다는 의미이자 그에 대한 경배의 과정, '나'를 찾아가는 성숙과 수행의 과정이며, 속세를 잠시 벗어나 성스러운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정화(淨化)의 여정입니다. 관음성지순례를 통해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을 느끼고,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의 품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발원합니다.

---

1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1B
## 보문사
普門寺

인천광역시 삼산남로 828번길 44 ☎ 032-933-8271 www.bomunsa.me

양양 낙산사와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상관음기도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문사는 관음기도도량인 동시에 보문사가 시작된 나한전이 있는 나한기도도량이자, 전국 유일의 오방용왕님이 모셔진 용왕전이 있는 용왕기도도량이기도 하다. 신라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다가 이곳에 와서 절을 창건하고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낙가산이라는 이름과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광대무변하다는 뜻에서 보문사라고 이름하였다. 대웅전과 관음전 사이에 있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낙가산 중턱 눈썹바위 아래에 새겨진 마애관음좌상을 만날 수 있다. 보문사가 관음기도도량임을 상징하는 마애보살상이 모셔져 있으며 이곳에서 기도드리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없다고 하여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낙조가 일품이어서 무아지경의 불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나한장소 기와접수처 및 종무소 • 운영시간 09:00~17:00

2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2B
## 조계사
曹溪寺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 02-768-8600 www.jogyesa.kr

조계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우리 민족과 함께한 역사의 현장이다. 일제 치하인 1910년, 조선불교의 자주화와 민족자존의 회복을 염원하여 스님들에 의해 창건되었다. 한국 불교 최초의 포교당이자 사대문 안에 최초로 자리한 사찰로서 해방 이후 불교 정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계사 안에는 전국의 3천여 개 사찰을 관장하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등이 있어 조계종의 중무를 맡고 있으며 불교중앙박물관과 공연장, 국제회의장 등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통해 현대 한국의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 최근에는 24시간 대웅전을 개방해 누구든 자유롭게 불교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 나한장소 안내소 • 운영시간 09:00~17:00

3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2C
## 용주사
龍珠寺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 031-234-0040 www.yongjoosa.or.kr

용주사는 본래 신라 문성왕 16년에 갈양사라는 이름으로 염거화상이 창건한 사찰이었고, 이후 고려 제4대 광종 21년 혜거국사가 선수가 빼어난 갈양사를 보고 민대의 국가 복지를 위한 축원 도량으로 삼으라 하여 고려왕조 원찰로 승격시켰다. 이후 찾은 병년으로 인해에 사찰이 소실된 후 폐사되었다가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을 화성으로 옮기면서 절을 크게 중수하여 용릉의 원찰로 삼아 비명에 숨진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낙성식 날 밤 정조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여 절 이름이 용주사이다. 정조가 크게 감화받았던 부모은중경을 찰을 중수하면서 함께 봉안하였으며, 정조의 명으로 만들어진 국가 보물 불설부모은중경판 85매 중 일부가 용주사 홍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국보 용주사 동종과 보물 용주사 대웅보전 등 고려 시대와 조선 중기의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의 대표적 선승이자 대중선을 널리 편 전강 스님이 중앙선원을 설립하여 용주사의 수행 가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이처럼 용주사는 효심과 수행이 한데 어우러진 효행 근본도량이다.

• 나한장소 기도접수처 • 운영시간 09:00~17:00

4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2C
## 수덕사
修德寺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 041-330-7700 www.sudeoksa.com

백제 때 큰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수덕각시가 중생제도를 위해 창건했다는 수덕사는 경허 스님, 만공 스님으로 이어지는 선풍을 간직한 사찰이다.

무애자재한 경허 스님의 법을 이어 선지를 드높였던 만공 스님은 덕숭산에 금선대를 짓고 정진했으며 수덕사, 정혜사, 견성암 등을 중창하면서 수행납자를 제접했다. 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은 벽초 스님은 수덕사에서 청혜사까지 천월십 계단을 쌓는 등 수행자들의 공부를 돕보기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한것으로 유명하다. 수덕사의 대웅전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며 정혜사 능인선원을 비롯하여 개심사 보현선원, 향천사 전월선원,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방인 견성암 선원과 장원, 율원 등을 갖춰 덕숭총림의 선지를 펼쳐가고 있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30~17:00

5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2D
## 마곡사
麻谷寺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 041-841-6221 www.magoksa.or.kr

공주 태화산에 자리한 마곡사는 1,400여 년 전 신라 자장 스님이 창건한 절로 큰스승들이 대를 이어 머무신 충청남도의 중심사찰이다. 삼법지에 사람들이 삼대사람 뼈빠진 골골, 그리고 16년에 걸친 한결같은 정성과 신앙심이 뭉쳐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팔만대장경과 더불어 고려 목판 등 해인사와 모든 경판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법보전과 수다라장, 동·서 사간전에 모셔져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스님이 머물고 있는 사찰로 선원, 율학승가대학원, 승가대학교를 갖춘 종합 수행도량이다. 팔만대장경과 스님들의 수행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해인삼매의 경지를 배울 수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적 호국도량 입니다.

• 나한장소 기도접수처 • 운영시간 09:00~17:00

6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3D
## 법주사
法住寺

충남 보은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 043-543-3615 www.beopjusa.com

서기 553년 의신조사에 의해 신라 때 창건된 이래로 진묵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에 의해 용화심회 삼법 도량으로 중창되면서 법주사는 미륵신앙의 요람으로 가꾸어졌다. 그 청신은 금동미륵대불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근대에는 억승선맥을 꽃피운 금오 스님이 법주사에 머물며 다시 선풍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법주사에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5층 목탑인 팔상전과 비슷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보살입상이 모셔져 있다. 이 보살상은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에 등장하는 최근보살이라는 설과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세상에 남아 기사와 발우를 전하라는 석가여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가섭존자라는 설이 있다. 진묵스님가 인생 이르셨을 때 발을 같던 소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농부들이 모두 스님을 따라 입산수도하면서 속세를 버린다는 의미의 산 이름을 얻었는 속리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머물러 있는 법주사가 있어 속리산은 속세를 버리지 않고 속세를 한가득 품어주는 곳이 되었다.

• 나한장소 기도접수처 • 운영시간 09:00~16:30

7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2E
## 금산사
金山寺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면 모악15길 1 ☎ 063-548-4441
www.geumsansa.org

백제 때 창건되어 진표율사에 의해 크게 중창되면서 미륵신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금산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륵도량이다. 미륵신앙을 상징하는 미륵전은 1층의 대자보전, 2층의 용화지회, 3층의 미륵전으로 각기 다른 편액이 걸려있지만 내부는 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륵부처님이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상징화한 법당이다. 미륵전 원편 위쪽에는 수계법회를 거행하는 계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계의 정신이 일체에 평등하게 미친다는 의미에서 방등계단이라 이름한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에는 뇌묵 처영 스님의 주도하에 천여 명의 승병을 조직하는 등 호국에 앞장서기도 했다. 산머리에 이어를 안은 어머니 형상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모악산이라 하듯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근거지로서 뭇 중생을 어머니와 같은 가슴으로 품어 안는 도량이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30~17:00

8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2E
## 세소사
來蘇寺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 063-583-7281 www.naesosa.org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일이 다 소생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원력으로 백제 때 창건된 내소사. 연꽃과 수련으로 장식한 문살과 세월의 흐름을 간직한 빛바랜 단청이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오색영롱한 관음조 한 마리가 단청했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대웅보전 안에는 눈길이 마주치면 소원을 이룬다는 백의관음보살 후불벽화가 모셔져 있어 간절한 소망을 안고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서해 제일의 관음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나무 숲길을 지나 사천왕문에 들어서면 커다란 고목과 울창울창한 전각들, 그리고 뒤편의 능가산이 어느 것도 나서지 않고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채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빛깔의 전각들이 소박한 아름다움을 빛어내고 있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00~17:00

9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2E
## 선운사
禪雲寺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www.seonunsa.org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한 편으로 가장 먼저 동백꽃이 떠오르게 되는 선운사. 눈 내리는 한겨울에 붉은 꽃송이를 피워내는 동백의 고아한 자태와 온어기 노니는 계곡과 천연굴, 낙조대 등 주변 경관이 수려해서 수많은 참배객이 찾는 곳이다. 백제때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스님은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에 머무르면서 마음을 갈고 닦아 선정의 경지를 얻는다고 하여 정 이름을 선운사라 하였으며 지역의 도적들에게까지 부처님 법을 가르쳐 교화하고 그들이 염전을 일구고 소금을 구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만큼 지역주민과 동고동락했던 사찰이다. 지금도 강원과 산내 암자의 제방 선원에서 는 밝은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어 강학과 수선 도량의 면모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00~17:00

10
성지순례코스 서남권
2E
## 백양사
白羊寺

전북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061-392-0434 www.baekyangsa.or.kr

백양사는 무위진인의 참사람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찰로서 절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백제시대 무왕 33년에 『백암사』로 창건하여 고려시대에는 『정토사』로 불리우며 정토종 본산으로서 역할을 해오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선조 7년(1574) 환암(喚庵)선사가 중건하면서부터 『백양사』로 개칭 한 것으로 본다. 환암선사께서 『약사경』에 주석하면서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시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 한 양 한마리가 법화를 듣고 간 때가 있었다고 한다. 칠일간의 법회가 끝나는 날 스님의 꿈에 나타난 양은 "전상에서 죄를 지어 양이 되었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업장이 소멸하여 다시금 천상의 세상에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했다고 한다. 이튿날 절 앞 한켠에 그 흰 양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물인 축생까지도 참된 가르침을 전해온 백양사에는 근래로 용성스님, 동산스님, 전강스님, 고암스님 등 근현대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운문선원과 후학양성에 평생을 바친 만일스님의 구도열로 일군 고불총림 선원이 수행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사찰 입구 연못의 깊고 맑은 물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선의 기운으로 맑혀주는 곳이다.

• 나한장소 기도접수처 • 운영시간 09:00~17:00

11
성지순례코스 남부권
2G
## 대흥사
大興寺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 061-535-5775
www.daeheungsa.co.kr

통일신라 때 창건된 대흥사는 서산대사가 '전쟁을 비롯한 삶재가 미치지 못할 곳으로 만년 동안 혜슨되지 않을 땅'이라고 하여 그의 가사와 발우를 이 곳에 전하라고 이른 후 조선의 대표적인 사찰로 발돋음하였다. 서산대사의 유훈 이후로 대흥사에서는 18분의 대사스님과 13분의 대강사를 배출하여 불교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다. 특히 차의 성인이라 불렸던 초의선사는 차와 선이 둘이 아닌 다선일미의 경지로 우리나라의 차문화를 승화시켰으며, 정약용, 김정희 등 당대의 지식인과 교류하여 불교문화의 폭을 한층 드넓게 가꾸었다. 산 입구에서 대흥사까지 이어지는 십리 솔길은 울울창창한 숲과 녹음이 장관이며 만일임 터 근처에는 수령이 1200년이 넘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리들의 찰나적인 생각들을 넉넉하게 품어준다. 대흥사 천불전에 모셔진 천 분의 옥불상은 생김새와 표정과 몸짓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 색다른 불거리를 안겨준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30~17:00

12
성지순례코스 남부권
3F
## 향일암
向日庵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

거북이가 경전을 등에 지고 있는 모습의 금오산과 그안에 해를 머금고 있는 관음기도 도량 향일암. 중생들의 갖가지 소망을 담아 수많은 돌계단을 힘겹게 오르면 해탈문을 비롯하여 원효 스님이 수도한 관음전으로 향한 돌문 등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일곱 개의 돌문을 통과해야 바위 위에 지어진 여러 전각을 만날 수 있다. 하나의 돌문을 통과할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만날수 있듯이 본래 마음자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참수행 도량이다. 조선 시대에 승군을 지휘하여 호국에 앞장섰던 사명대사가 즐기던 사찰이어서 스님의 부도와 진영이 모셔져 있다. 현대에 와서는 40여 년에 걸친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통해 성보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교육공간을 갖추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여가고 있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30~18:30

13
성지순례코스 남부권
3F
## 송광사
松廣寺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061-755-0107
www.songgwangsa.org

고려 시대에 보조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를 조직하여 선종의 근본도량으로 삼은 후 엄여섯 분의 국사를 배출하면서부터 승보종찰로 자리 잡은 송광사. 그 맥은 현대에 이르러 강원, 선원, 율원의 조계종림을 비롯하여 불일국제선원, 보조사상연구원 등으로 이어져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귀한 나무로 선정한 곱향나무 쌍향수와 쌀 일곱 가마의 밥을 담아 저장할 수 있는 목조용기 비사리구시, 어느 순서로 포개도 크기가 오묘하게 들어맞는데 장인들이 우연히 보려고 해도 만들지 못했다는 능견난사라는 이름의 제기가 송광사 3대 명물로 손꼽힌다. 16국사의 영정을 모신 국사전과 효봉 스님의 진영을 모신 효봉영각, 그리고 장엄한 새벽예불의 장관 속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수행승의 구도열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도량이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9:00~18:00

14
성지순례코스 남부권
3F
## 화엄사
華嚴寺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 061-783-7600 www.hwaeomsa.org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지리산의 대표적 사찰 화엄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본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을 발원한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화엄사에는 우리나라 사찰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각황전이 위용을 뽐낸다. 각황전 앞에는 역시 큰 규모의 고목형 석등이 있고 원통전 앞 독특한 형태의 사자탑과 효대의 사사자승층석탑, 공양자 석등이 대표적인 유물이다. 임진왜란 때에는 주지였던 성총 스님이 3000여 명의 승려를 이끌고 왜군에 대항하다 전사했고 벽암 각성 스님과 자운스님은 이순신 장군의 부장으로 활약하는 등 호국에 앞장서기도 했다. 의상대사가 장옥전을 건립할 때 사방 벽에다 새겼던 화엄성경에서 엿볼 수 있듯이 화엄사는 우리나라 화엄 사상의 근본종찰이다.

• 나한장소 기도접수처 • 운영시간 09:00~17:00

15
성지순례코스 남부권
3E
## 쌍계사
雙磎寺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 055-883-1901 www.ssanggyesa.net

지리산의 장엄함과 섬진강의 평화로움이 조화를 이룬 곳에 자리한 쌍계사. 신라 시대 삼법 스님이 육조 혜능 스님의 정상을 모셔와 한겨울에도 물줄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절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 진감 혜소 스님이 크게 중창한 후 선의 가르침을 널리 펼으며 법패를 널리 보급하여 불교융의의 발상지가 되었다. 불교음악의 자취는 범패명인을 배출한 교육장 팔영루에 남아있는데 진감 스님이 섬진강에서 뛰노는 물고기를 보고 말음률로 선사한 범패를 작곡했다는 뜻에서 팔영루라 한다. 진감스님의 법력을 흠모했던 고운 최치원 선생의 비문이 새겨진 진감국사 탑비와 근래에 고산스님이 스리랑카에서 직접 모셔온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봉안한 구층석탑, 그리고 하동 화개장터까지 이어지는 십 리 벚꽃 길은 쌍계사 개곡의 맑은 물소리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안겨줄 것이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00~17:00

16
성지순례코스 남부권
3F
## 보리암
菩提庵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 055-862-6115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남해 보리암. 해수 관음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이자 해돋이 명소로 유명하다. 원효 스님은 금산이 마치 불을 뿜듯 빛을 뿌려 이곳에서 초암을 짓고 수행하였으며 장유 스님은 금산의 천태만상의 변화에 매혹되어 이곳에 터를 잡고 안도 아유타국에서 모시고 온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였다 한다. 그리고 조선의 개국조인 이성계는 이곳에서 새로운 왕조를 열게 해달라는 백일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이루었다는 전설도 전한다. 보리암 절벽에서만 채취 할 수 있다는 잘벽처와 비닷속에서 용트림하듯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 그리고 희뿌연 안개속에 보일 듯 말 듯 수많은 섬을 볼 수 있는 보리암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38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좌선하던 좌선대의 울퉈 편 지리와 부처님이 들로 만든 배를 타고 떨고 지나갔다는 쌍용문도 보리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풍경이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7:30~18:00

17
성지순례코스 동남권
4D
## 죽화사
桐華寺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 053-980-7900 www.donghwasa.net

신라 오악 중 중악이며, 민족의 영산인 팔공산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주위는 모든 나무들이 해돋이 명소로 유명하다. 팔공산 금산이 마치 불을 뿜듯 포근하고 안온하게 자리하여 비봉귀소형(飛鳳歸巢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동화사. 한겨울에 오동나무가 성서로운 꽃을 피웠다는 정조 설화처럼 절망과 험겨움도 털어낼 수 있을 듯 편안하다. 선교합일, 회교귀선(會敎歸禪)이라는 독창적인 한국불교를 만들어낸 보조 지눌 국사가 주석하신 곳이자,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영남지영아문(嶺南鎭營衙文)을 설치하여 나라를 구한 호국의 성지이며, 근현대 한국불교 선종의 대가람으로 효봉, 성철, 진제 등 대선사들과 큰스님들이 용맹정진했던 수행도량이다. 108계단을 오르면 근대에 조성된 통일약사여래석조대불을 친견할 수 있고, 인근에는 지바위석조여래좌상, 파계사, 송림사, 선분사, 제2석굴암 등 수많은 사찰을 만날 수 있다.

• 나한장소 신도접수처 • 운영시간 09:00~17:00

18
성지순례코스 동남권
4D
## 은해사
銀海寺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 054-335-3318 www.eunhae-sa.org

은해사는 신라41대 헌덕왕이 즉위한 해인 809년에 혜철국사가 창건한 헌덕왕의 원찰이다. 1,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은해사는 운부암에서 가까운 해한평에 세워진 해인사에서 시작되었다. 아미타부처님의 도량으로 불~보살~나한 등 팔공산 곳곳에 계시는 불보살들이 마치 은빛 바다가 물결치는 듯 찬란하고 웅장한 모습이 극락정토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은해(銀海)'라고도 한다. 은해사는 흥진국사가 주석한 후에 선교양종(禪敎兩宗)의 총본산이 되었으며, 조선 시대에 사고라져가던 불교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소를 불어넣은 영파상규 스님이 주석하면서 화엄 교학의 본산으로 이름을 빛냈다. 은해사는 주사체의 보고라고 일컬을 정도로 주사 감정의 선생이 은 뿐만이 다수 있어 원만하면서도 힘이 있고 절묘한 주사체의 묵향이 전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30~17:00

19
성지순례코스 동남권
3E
## 해인사
海印寺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 055-934-3000 www.haeinsa.or.kr

신라 시대 화엄십찰의 하나로 세워진 해인사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팔만대장경을 모셔진 법보사찰이다. 고려시대 수재래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불타 버리고 다시 지어지기를 반복하여 간절히 수행 정진하였다. 해인사는 사명대사, 서산대사, 만공 스님 등을 만날 수 있으며,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도량이다. 해인사는 대장경 판전, 법보전, 대적광전, 장경각, 김정희 등 당대의 지식인과 교류하여 불교문화의 폭을 한층 드넓게 가꾸었다. 산 입구에서 대흥사까지 이어지는 십 리 솔길은 울울창창한 숲과 녹음이 장관이며 만일임 터 근처에는 수령이 1200년이 넘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리들의 찰나적인 생각들을 넉넉하게 품어준다. 대흥사 천불전에 모셔진 천 분의 옥불상은 생김새와 표정과 몸짓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 색다른 불거리를 안겨준다.

• 나한장소 기도접수처 • 운영시간 09:00~17:00

20
성지순례코스 동남권
3D
## 직지사
直指寺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054-429-1700 www.jikjisa.or.kr

창건주 아도화상이 길상지라 하여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데서 생겨난 이름 직지. 그 무엇보다도 선가에서 강조하는 '직지인심견성성불'의 깊은 뜻을 간직한 직지사. 그런 의미에서 직지사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참수행 도량이다. 조선 시대에 승군을 지휘하여 호국에 앞장섰던 사명대사가 즐기던 사찰이어서 스님의 부도와 진영이 모셔져 있다. 현대에 와서는 40여 년에 걸친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통해 성보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교육공간을 갖추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여가고 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사람의 본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견성이고 성불이다.

• 나한장소 종무소(재무실) • 운영시간 09:00~17:00

21
성지순례코스 동남권
4D
## 고운사
孤雲寺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 054-833-2324 www.gounsa.net

연꽃이 반쯤 핀 천하명당에 신라 시대 의상 스님이 창건한 고운사. 소나무와 글씨나무가 아늑하게 둘러싸인 청풍 숲길과 구름과 꽃과 산새들이 어우러져 세상 밖 하늘 세계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선경을 자랑한다. 예로부터 죽어서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고운사에 다녀왔느니고 물을 정도로 지장보살의 영험이 유명하며 명부전 지장보살님의 원입도 사찰답게 가득 넘치다. 경내에는 신라 말 유교, 불교, 도교에 모두 통달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최치원 선생이 세운 가운루와 우화루가 또 다른 멋을 안겨준다. 소나무에 얽혀있는 구름 속에서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도량이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00~17:00

22
성지순례코스 동남권
5D
## 기림사
祇林寺

경북 경주시 양북면 기림로 437-17 ☎ 054-744-2292 www.kirimsa.net

기림사는 인도 범마라국의 광유성인에 의해 입정시(林井寺)라는 이름하여 개산(開山)하고 금수복대오중수를 걸어 부처님께 처음 다녀 공양했어 금수정화오중수를 걸어 오백화를 키워 넘보 수행법을 상아 훗날 신라 창기의 정신적 뿌리가 되며 한국 최초의 자운화가 어심의 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기림사 약사전에는 금불도의 수행을 하는 사라수왕이 광유성인에게 한다는 모습의 한대목화가 있으며, 이는 국내 유일의 가장 오래된 한대목화로써 희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 도량의 역사가 처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후 원효스님에 의해 중창되면서 절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던 최초의 사원인 기림정사의 숲을 의미하는 기림사로 불렀다. 기림사에는 다섯개의 약수가 있어 오장수라 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단이슬과 같다는 북임의 감로수와 미사기만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후원의 화장수, 기개가 커지고 신체가 웅장해져 장군을 낸다는 3층석탑 걸의 장군수, 눈이 밝아진다는 천왕문 앞의 명안수, 물빛이 너무 좋아 까마귀가 쪼았다는 천왕문 안의 오탁수가 있으나 현재 화장수를 제외한 무물은 매물되고 수맥만 흐재되고 있다. 기림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한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가 있으며 달빛만큼이나 단아하고 고즈넉한 곳이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8:00~17:00

23
성지순례코스 동남권
5E
## 불국사
佛國寺

경북 경주시 불국로385 ☎ 054-746-9913 www.bulguksa.or.kr

부처님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한 불국사, 불국사의 관음전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의 영험과 함께 화엄경의 내용에 근거해 조성되었다. 화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남인도의 포타라카(potalaka)라는 신에 머물며 사바세계를 살피고 중생을 구원해 준다고 한다. 불국사의 관음전이 전각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계단은 가파르게 조성되어 마치 절벽을 오르는듯하게 되어있는 것은 이 포타라카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전각과 마찬가지로 경전의 가르침대로 조성되어 불국정토를 구현하였기 때문이다. 불국사는 석가, 다보탑을 비롯하여 국보 7점과, 대웅전의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벽화가 새로이 보물로 지정되고, 그외의 다수의 불교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석가 명승1호이다. 1996년에는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나한장소 관음전 • 운영시간 09:00~17:00

24
성지순례코스 동남권
4E
## 통도사
通度寺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055-384-8380 www.tongdosa.or.kr

신라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의 가사를 봉안했기 때문에 불보종찰이라 칭하는 통도사. 통도사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큰 뜻을 간직하고 있는데, 통도사의 영축산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인도의 영축산과 닮았다는 의미와 현재 스님이 되려는 사람은 모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그리고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금강계단에 봉안했기 때문에 대웅전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으며 강원, 선원, 율원 등 수행기능의 전문교육기관을 갖추어 명륜총림이라 불린다. 용화전 앞의 봉발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우를 상징하는 것으로 미래세에 나투실 미륵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우를 이어받아 당래의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성보박물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친히 수하였던 가사를 비롯하여 3백여 점의 불화와 4만여 점에 이르는 수많은 성보문화재가 보관 · 전시되어 있다.

• 나한장소 종무소 • 운영시간 09:00~17:00

25
성지순례코스 동남권
4E
## 범어사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 051-508-3636 www.beomeosa.kr

신라 때 의상 스님이 창건한 범어사는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사찰로 유명하다.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가 승병을 이끌며 호국법역의 뿌리를 내렸고 근대에는 경허 스님, 성월 스님, 용성 스님, 동산 스님, 고암스님, 성철 스님 등 해이할 수 없는 많은 선지식이 이곳에서 수행 정진하여 선철대본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선삼에 의하면 한 마리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황금빛 물이 흐르는 샘에서 노닐었다고 하여 금정산이라는 산이름이 지어졌고 그 '하늘나라의 물고기가 그대로 잠이롭이 되었다. 범어사 좌우 계곡에는 천 마리의 거북이와 만 마리의 자라 모양을 한 기암괴석이 있어 도깨 속에 있으면서도 수재화 같은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선사한다